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변형행동 비교

위은하*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According to Lifestyle in High School Girls

Wee, Eun-Hah*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uman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school uniform design modification in high school girls and provide basic data for guidance in the wearing of school unifor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85 girls who were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high schools throughout Gwangju. This study was execut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from this study was processed using SPSS WIN 12.0(K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would be significantly difference depending on lifestyles in high school girl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a few items. So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ol uniform modification was a common that appeared in most high school girls. However it was affected by their lifestyle. specifically, a digital-dependence lifestyle group has a few different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than the others.

In other words, school uniform modification in high school girls who spend their most time in school is a general and universal clothing behavior by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the effect of lifestyle.

It is considered that rules concerning school uniform modification should allow students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within certain limits. Teachers should instruct students to wear appropriate underwear rather than keep students under control with a fixed set of rules. If High school girls have a negative body image as a result of their exposed body, they should receive active educational guidance.

Key Words: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교복변형(School Uniform Modification), 여고생(High School Girls)

I. 서론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복변형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의복행동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복의 치수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복변형에도 유행이 있어 3, 4년 주기로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다(1만 원 이면 교복개조 똑딱, 2008.7.8).

더욱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미니스타일이다 보니 교복변형디자인은 더 짧고 타이트하게 변형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몸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형태로 교복을 변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밀착된 교복형태는 생활지도의 주 대상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심성실 외, 2003). 교복변형디자인은 여학생들은 주로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등 체형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남과 달리 보이는데 중점을 두고 거주지역에 따라 비슷한 유행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호하는 교복이미지에 대해 황진숙 외(2002)는 남자고등학생들은 개성적인 이미지의 교복을 선호하고 여자고등학생은 지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의 교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교복을 착용하고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복은 청소년기에 고조되는 필요 이상의 의복관심도를 막고, 착용자 자신이 학생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박찬혜, 1981).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의복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 간 빈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인자, 1992).

그러나 청소년들은 교복에 대해서 자신들의 감각에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만족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률적인 모양의 교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다양한 교복변형행동을 하고 있다(이정현·이윤정, 2008). 즉 학생들은 교복을 획일화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교복은 소속감과 통제성은 물론 디자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심미성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할 수 있다(정혜정 외, 2008).

한편, 가치관 정립이 미성숙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가치관 형성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 최근의 디지털 환경은 원하는 정보와 의견교환, 자유로운 토론의 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 사회성, 자치 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시키고 있다(한경미·나영주, 2003).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들은 외모의 멋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소비생활, 인터넷 사용의 증가 등 과거 세대보다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세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미 생활의 한 영역이 되고 있고 선행연구(류숙희·김보연, 2002; 김선희, 2003, 이명희, 2003; 이은희, 2006; 황진숙·양화영, 2006; 박광희, 2007; 이소형, 2007)에 의하면 그들의 신체 및 의복에 대한 태도는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교복변형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과 교복변형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의생활지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구성요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변형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Engel 외(1986)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을 말하며 개인의 문화, 사회 준거집단,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습득한 것

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 하였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가치관과 개성과 상당한 의미 중복이 있으며 개성의 영향과 개인이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파생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류숙희·김보연, 2002. 227-228).

미시적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 의견(Opinion)을 의미하는 A.I.O.를 측정하여 나타낸다. 즉, 활동은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관심은 그들의 주위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의견은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측정한다.

라이프스타일은 의류학 연구에서 개인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중요한 척도로서 적용되고 발전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이혜림(1993)은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관심, 주거 및 식생활태도, 성취지향, 외모관심, 독서태도, 진학태도 등 9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차경순(1995)은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상표중시형, 타인의견중시형, 패션추구형, 외향형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이후 연구들은 정보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디지털 성향을 포함하는 라이프스타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명희(2003)는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요인으로 디지털 성향,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황진숙과 양화영(2006)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성요인으로 패션·쇼핑관심, 인터넷 중심, 적극성, 가족중심, 학업 중심, 자립성, 자신감을 들었으며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집단을 학업중심집단, 가족중심/자신감 집단, 인터넷/패션관심 집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패션관심집단은 이명희(2003) 연구의 물질지향성과 디지털성향과 비슷한 유형이고 가족중심/자신감집단은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과 유사하다.

이은희(2006)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으로 디지털성향,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가정지향성, 물질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성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다르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외부환경과 개인적 특성의 총체로서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에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라이프스타일은 청소년의 외모와 관련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교복변형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의복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에 극대화되어 여러 가지 유형의 의복행동을 유발시킨다. 특히 12세부터 의복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18세 경에 최고조에 이르며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는다(이인자, 1985).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의복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심리상태에 의해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자신의 외모를 비롯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민감한 의복태도를 보인다(김인경, 1993). 김순구(1986)의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미적 욕망이 커서 의복관심도가 더 높다.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혁신적이고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외모와 유행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희(2003)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외모관련 행동과의 연구에서 적극적 활동성은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물질지향성은 의복유행, 멋추구 및 유명상표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검절약성은 멋과 유행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자기 신체에 만족하게 되어 자신감을 지님으로써 사회생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체나 외모는 적극적인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외모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나친 자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육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진숙과 양화영(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이 인터넷/패션관심 집단은 의복소평에 있어서 쇼핑을 즐기거나 유행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가족중심/자신감 집단은 라이프스타일에 의복을 구매할 때 실용성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은희(2006)는 연구에서 적극적 활동성과 디지털 성향이 높은 여고생이 유행을 추구하고 외모에 대한 동조욕구가 높으며, 적극적 활동성과 물질지향성이 높은 여고생은 의복의 성적 매력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높고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으며 가정지향성이 낮은 여고생은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며 심미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모든 요인인 낮고 가정지향성이 높은 여고생은 정숙성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박광희(2007)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성 추구집단, 일반보편형 집단, 적극성취형 집단으로 나누고 경제성 추구집단은 중학생과 남학생들이 여기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의복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극성취형 집단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외모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내적특성 및 외부환경이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은 의복행동에 쉽게 반영되며, 현저하게 변화하는 신체적, 성격특성의 발현 또한 자신의 외모나 의복행동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을 알 수 있었다.

3. 청소년의 교복변형행동

교복변형행동은 의복관심도의 반영으로 의복관심도의 하위 영역인 외모, 개성, 상표지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복변형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애경 외, 2006). 이혜경(1999)의 연구에서도 교복변형 태도가 전반적으로 교복만족도보다 의복관심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크며 그 중에서도 개성과 동조, 외모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복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품위 및 안락감이 교복변형과 정적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교복이 주는 품위와 안락감이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체형결점을 감출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복변형의 유형은 하의(스커트)의 길이와 폭을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의의 품과 길이 순으로 많았다. 교복변형의 유형은 연구지역과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하의 교복에 대한 변형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신체만족도면에서 하의의 신체불만을 표현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교복변형의 정도나 빈도에 관계없이 교복변형을 한 청소년이 52.7%(이혜경, 1999), 58.1%(이애경 외, 2006)으로 과반수를 넘는 편이었으며, 교복변형의 기준은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복변형의 기준은 타이트한 복고형처럼 기성세대의 패션 컨셉을 차용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혜경·김세희, 2004).

교복변형행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의 비행행동을 방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등 학교 안팎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교복의 기능을 해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복을 변형하고 장식함으로써 시간과 의복비도 부수적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교복변형행동을 하나의 일탈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비행행동과 관련지어 보는 시각에 대해 이인자(1992)는 교복착용이 등·하교시를 제외하고 거의 자유복을 입고 활동하므로 교복을 입는 것 자체는 청소년 비행과 논리적 타당도가 적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와 자유복을 입는 학교간의 비행행동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직접적인 일탈행동으로 보기는 성급한 판단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옷차림이 흩어지는 것이 비행행동의 조짐이라고 보는 낙인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바른 교복차림이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밀착된 형태의 교복변형유형이 인체의 건강장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측면이다. 의복압은 의복이 인체에 가하는 압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압이 과하면 호흡, 혈액순환, 신체 동작을 방해받고, 심하면 신체가 변형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활동성과 관련된 의복의 여유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변형이후 학교생활에서 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되기 십상이다.

정혜원·정인순(2005)은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변형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이며, 과중한 입시와 교복착용 등으로 의복의 선택, 착용과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각자가 뚜렷이 의복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교복변형을 교칙위반 문제로 치부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신체발달상과 교복행동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교복착용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85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법을 적용하여 실행되었다. 총 6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614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58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질문내용의 경우 류숙희·김보현(2002), 이명희(2003), 이은희(2006), 황진숙·양화영(2006) 등의 연구를 참고하고, 교복변형에 관한 내용은 황진숙 외(2002) 정혜경·김세희(2004) 등을 참고하여 본 조사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교복디자인 변형행동'은 교복변형에 대한 인식, 변형이유, 교복디자인변형내용, 교복변형만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은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물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SPSS WIN 12.0(Kr)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K-평균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 목적, 경험유무, 교복변형의 정보원, 변형부위, 변형후의 만족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유형

1)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요인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22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5개 문항을 제외한 5개요인의 17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표 1〉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요인

요인 1. 적극적 사교성향(고유치=2.74, 총변량=16.13, 누적변량=16.13, Cronach α=.763)	
나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한다.	.727
나는 친구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96
학급회의 등 회의를 할 때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다.	.694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671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일한다.	.648
나는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려 한다.	.560
요인 2. 디지털 의존성향(고유치=2.09, 총변량=12.30, 누적변량=28.43, Cronach α=.750)	
습관처럼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855
여가시간에 주로 컴퓨터를 하며 지낸다.	.855
컴퓨터 앞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거의 밤을 샌 적이 있다	.724
요인 3. 물질지향성향(고유치=1.90, 총변량=11.19, 누적변량=39.62 Cronach α=.691)	
무슨 형태의 일이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797
나는 무엇보다 봉급이 많은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794
성공한 학자보다는 성공한 사업가가 좋다.	.731
요인 4. 절약성향(고유치=1.82, 총변량=10.72, 누적변량=50.33, Cronach α=.671)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 편이다.	.679
용돈을 절약해서 저축을 한다.	.661
용돈을 절약하려고 굳것질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650
요인 5. 가족중심성향(고유치=1.44, 총변량=8.46, 누적변량=58.79, Cronach α=.595)	
우리 가족은 함께 외식이나 극장구경을 종종 간다.	.816
나는 부모나 형제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73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임에 참여하여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사교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디지털의존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봉급과 사업가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물질지향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절약 및 저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절약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끝으로 요인 5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가족중심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추출된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성요인은 이명희(2003) 연구에서 추출된 디지털 성향,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과 이은희(2006)연구의 디지털 성향,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가정지향성, 물질지향성과 유사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5이상이었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58.79%였다.

2)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유형 분류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군집분석의 결과이며, <표 3>은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형 및 구성비(K-평균 군집분석)

라이프스타일 유형	응답자수(명)	구성비(%)
유형 I	184	31.45
유형 II	199	34.02
유형 III	202	34.53
계	585	100.00

〈표 3〉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군집의 유형

라이프스타일 유형	유형 I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유형 II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유형 III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F-value
라이프스타일 요인				
요인 1 적극적·사교성향	3.54 A	3.01 C	3.41 B	75.726***
요인 2 디지털의존성향	2.44 C	3.29 A	2.69 B	60.621***
요인 3 물질지향성향	3.37 B	3.30 B	4.31 A	195.676***
요인 4 절약성향	2.96 C	3.07 B	3.39 A	101.661***
요인 5 가족중심성향	3.25 B	3.44 A	3.49 A	6.261***

***p<.001

a.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로 알파벳이 다른 것은 평균이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유형은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유형 III이 202(34.5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형 II는 199(34.02%)명, 유형 I은 184(31.45%)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유형 I은 적극적인 성향과 사교성향 요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적극적·사교스타일’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류숙희와 김보연(2002)의 적극적사교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 II는 디지털 의존성향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디지털의존스타일’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습관처럼 인터넷을 하며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하며 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명희(2003)와 이은희(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디지털 성향은 뚜렷한 구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중심성향의 특징도 함께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III은 라이프스타일 중 특히 물질주의 성향이나 절약성향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절약·물질지향스타일’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저축과 절약성향이 강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차이

1) 교복변형에 대한 인식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교복디자인의 변형에 대한 생각의 차이(표 4)를 살펴본 결과(표 5) 라이프스타일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복변형의 찬반의견은 찬성 554(95.1%)명, 반대 29(4.9%)명으로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찬성하는 이유가 다양한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활동성이 없거나 단정치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2)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변형경험유무

다음으로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교복디자인의 변형 경험유무를 살펴본 결과(표 5) 유의한 차이(p<.01)가 전체적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84.8%)가 없는 경우보다(15.2%) 훨씬 많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디지털 의존 스타일유형이 변형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복변형경험이 없는 학생을 중심으로 그 이유(표 6)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번거로워서’(42.3%) 또는 ‘치수가 잘 맞으므로’(35.9%)의 이유로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디지털 의존스타일은 치수

〈표 4〉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에 대한 생각

교복변형에 대한 생각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전체	Chi-square
개성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찬성한다.		54(9.3)	56(9.6)	49(8.4)	159(27.3)	$\chi^2 = .707$
교복도 유행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10.3)	52(8.9)	58(9.9)	170(29.2)	
교복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4(11.0)	79(13.6)	82(14.1)	225(38.6)	
학생이라는 신분상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0(0.0)	1(.2)	1(.2)	2(.3)	
일상의 활동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3)	7(1.2)	7(1.2)	16(2.7)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단정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		4(.7)	3(.5)	4(.7)	11(1.9)	
합 계		184	198	201	583(100.0)	

〈표 5〉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경험유무

교복변형 경험유무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전체	Chi-square
교복변형경험 있다		167(28.5)	155(26.5)	174(29.7)	496(84.8)	$\chi^2 = 12.71^{**}$
교복변형경험 없다		17(2.9)	44(7.5)	28(4.8)	89(15.2)	
합 계		184(31.5)	199(34.0)	202(34.5)	585(100.0)	

**p<.01

〈표 6〉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하지 않는 이유(변형하지 않은 학생)

교복변형하지 않는 이유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전체	Chi-square
치수가 잘 맞으므로		5(6.4)	13(16.7)	10(12.8)	28(35.9)	$\chi^2 = 2.158$
번거로워서		6(7.7)	19(24.4)	8(10.3)	33(42.3)	
학교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5(6.4)	8(10.3)	4(5.1)	17(21.8)	
합 계		16(20.5)	40(51.3)	22(28.2)	78(100.0)	

가 잘 맞으며 번거롭고 학교규제를 잘 지키기 위한 모든 이유에서 교복을 변형하지 않는 경향이 다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비해 컸다.

3)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변형목적

교복디자인을 변형하는 목적(표 7)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전체적으로 여고생들이 교복디자인을 변형하는 목적은 ‘체형을 보완하고 개성

〈표 7〉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의 목적

교복변형 목적	라이프스타일 유형				전체	Chi-square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N(%)		
치수가 잘 맞지 않고 활동이 불편해서	61(11.5)	67(12.6)	58(10.9)	186(35.0)	$\chi^2 = 13.093^*$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0(3.8)	33(6.2)	18(3.4)	71(13.4)		
체형을 보완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75(14.1)	55(10.4)	77(14.5)	207(39.0)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21(4.0)	19(3.6)	27(5.1)	67(12.6)		
합 계	177(33.3)	174(32.8)	180(33.9)	531(100.0)		

*p<.05

〈표 8〉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의 정보원

교복변형의 정보원	라이프스타일 유형				전체	Chi-square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N(%)		
친구	124(25.2)	105(21.3)	132(26.8)	361(73.2)	$\chi^2 = 3.560$	
TV, 패션잡지, 인터넷	20(4.1)	27(5.5)	21(4.3)	68(13.8)		
부모님 또는 선생님	7(1.4)	7(1.4)	6(1.2)	20(4.1)		
길거리 패션	16(3.2)	14(2.8)	14(2.8)	44(8.9)		
합 계	167(33.9)	153(31.0)	173(35.1)	493(100.0)		

을 표현하기 위해서'(39.0%) 그리고 '치수가 잘 맞지 않고 활동이 불편해서'(3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교복이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여고생들의 심리적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복이 기성복화되면서 신체발달의 개인차가 큰 청소년의 치수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심리적 만족도가 큰 교복디자인의 향상 및 기성교복의 치수체계의 다양화 또는 기성복과 맞춤형의 절충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의존스타일은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달리 '치수가 잘 맞지 않고 활동성이 불편해서'가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으로 높았으며, 적극적·사교적 스타일과 절약·물질지향스타일은 '체형을 보완하거나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가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디지털 의존스타일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절약·물질지향스타일은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경향이 더 있었다.

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변형의 정보원

이런 디자인변형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표 9)에 대한 조사에서는 '친구'(73.2%)가 가장 높았고 'TV, 패션잡지, 인터넷'(13.8)에서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교복구입의 정보원에 있어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의 대중매체보다 친구나 선배, 부모님과 선생님의 조언, 자신이 직접 착용해본 결과를 중요시하는 정혜정 외(2008)의 연구와 일치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구입과 달리 교복변형에 있어서는 친구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디지털의존스타일의 경우 다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비해 친구의 영향이 더 낮고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더 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상의디자인 변형부위

N(%)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전체	Chi-square
교복변형부위	목둘레				69	9.841**
	늘임	2(2.9)	7(10.1)	1(1.4)		
	줄임	20(29.0)	13(18.8)	26(37.7)		
	소 계	22(31.9)	20(29.0)	27(39.1)		
상의길이	늘림	3(1.4)	4(1.9)	6(2.9)	208	1.149
	줄임	68(32.7)	63(30.3)	64(30.8)		
	소 계	71(34.1)	67(32.2)	70(33.7)		
어깨폭	늘림	4(3.2)	3(2.4)	4(3.2)	124	0.109
	줄임	37(29.8)	36(29.0)	40(32.3)		
	소 계	41(33.1)	39(31.5)	44(35.5)		
상의폼	늘림	2(1.2)	4(2.3)	1(0.6)	173	2.649
	줄임	57(32.9)	49(28.3)	60(34.7)		
	소 계	59(34.1)	53(30.6)	61(35.3)		
소매통	늘림	3(2.8)	1(0.9)	1(0.9)	108	1.679
	줄임	33(30.6)	36(33.3)	34(31.5)		
	소 계	36(33.3)	37(34.3)	35(32.3)		
소매길이	늘림	2(1.9)	1(1.9)	4(3.8)	104	0.414
	줄임	28(26.9)	31(29.8)	37(35.6)		
	소 계	30(28.8)	33(31.7)	41(39.4)		
상의허리둘레	늘림	3(1.3)	3(1.3)	1(0.4)	225	1.289
	줄임	78(34.7)	65(28.9)	75(33.3)		
	소 계	81(36.0)	68(30.2)	76(33.8)		

**p<.01

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변형부위

교복디자인 변형부위를 살펴본 결과(표 9), (표 10) 상의의 경우 ‘상의허리둘레’와 ‘상의길이’ 그리고 ‘상의 폼’을 많이 줄이는 변형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의허리둘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37.6%가 줄이는 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스커트의 경우 여고생들은 ‘스커트 허리둘레’와 ‘스커트 길이’를 줄이는 변형을 하였는데 스커트 길이는 조사대상자의 79.1%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허리를 중심으로 몸통에서 엉덩이둘레까지 밀착되는 형태로 상의길이가 스커트길이가 짧은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복변형디자인은 현재의 유행스타일인 미니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더 짧고 타이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유형별 차이는 ‘상의의 목둘레’와 ‘하의스커트의 길이’에서 나타났다. 상의의 목둘레의 경우 변형하

는 학생수가 적지만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p<.01) 나타났는데 디지털 의존스타일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목둘레를 줄이는 경우가 적고 늘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의 스커트길이의 경우 절약·물질지향적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보다 스커트길이를 줄이는 학생수가 더 많았다. 또 디지털의존스타일은 반대로 스커트를 늘이는 학생수가 약간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의존스타일유형의 체형이나 자세 때문일 수도 있고 구메디자인의 차이일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디자인의 변형행동의 만족도

교복변형 후의 만족도(표 11)도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p<.01) 디지털 의존스타일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10〉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하의디자인 변형부위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전체	Chi-square
허리둘레	늘림	3(1.3)	7(3.0)	3(1.3)	233	2.961
	줄임	74(31.8)	68(29.2)	78(33.5)		
	소 계	77(33.0)	75(32.2)	81(34.8)		
엉덩이둘레	늘림	7(5.3)	5(3.8)	5(3.8)	12	1.101
	줄임	33(25.2)	37(28.2)	44(33.6)		
	소 계	40(30.5)	42(32.1)	49(37.4)		
스커트길이	늘림	4(0.8)	11(2.3)	3(0.6)	481	6.788*
	줄임	151(31.4)	148(30.8)	164(34.1)		
	소 계	155(32.2)	159(33.1)	167(34.7)		
스커트폭	늘림	2(1.0)	4(2.1)	1(0.5)	191	2.982
	줄임	57(29.8)	53(27.7)	74(38.7)		
	소 계	59(30.9)	57(29.8)	75(39.3)		
스커트주름	늘림	4(2.6)	2(1.3)	0(0.0)	154	5.797
	줄임	43(27.9)	47(30.5)	58(37.7)		
	소 계	47(30.5)	49(31.8)	58(37.7)		
밑단둘레	늘림	4(3.1)	2(1.6)	2(1.6)	128	4.222
	줄임	38(29.7)	39(30.5)	43(33.6)		
	소 계	42(32.8)	41(32.0)	45(35.2)		

*p<.05

〈표 11〉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 변형행동의 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유형	적극적·사교 스타일 (N=184)	디지털 의존 스타일 (N=199)	절약·물질지향 스타일 (N=202)	F-value
교복변형행동의 만족도	2.27(.71) B	2.56(.72) A	2.35(.71) B	6.944**

**p<.01

a: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로 알파벳이 다른 것은 평균이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과 교복변형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의생활지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요인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별 교복변형에 대한 생각, 경험유무, 변형 목적, 변형부위, 변형만족도 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성요소는 5요인으로 ‘적

극적·사교성향’ ‘디지털의존성향’ ‘물질지향성향’ ‘절약저축성향’ ‘가족중심성향’이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유형은 ‘적극적·사교성향스타일’ ‘디지털의존스타일’ ‘절약·물질지향스타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교복디자인변형행동의 차이는 교복변형의 목적, 변형경험유무, 변형 후 만족도, 변형디자인부위 중 목둘레의 변형에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디지털 의존스타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디지털의존스타일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교복변형을 덜했고 교복변형을 하는 경우도 치수가 잘 맞지 않고 활동성이 불

편한 이유로 교복변형을 했으며 변형 후 만족도도 더 높았다. 변형부위에 있어서는 목둘레를 다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비해 더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고생은 교복 변형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고, 교복을 변형하는 이유는 치수가 잘 맞지 않고 활동성이 불편하거나 체형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보완하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그리고 디자인을 변형하는 부위는 상의의 길이와 허리둘레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스커트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자인 변형에 대한 정보는 다른 의류제품구매행동과는 다르게 대부분 친구에게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항목별 라이프스타일 유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여고생들은 교복변형을 찬성하고 있어 먼저 일반적 의복행동으로 이해되었으며 다음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존스타일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다른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이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해 정해진 규율에 맞춰 엄격히 단속하기보다 일정한 범위를 두어 개성을 표현하게하거나 속옷을 갖추어 착용하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교복의 기성복화에 따른 유행의 반영은 받아들여더라도 신체가 드러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장신구나 머리염색 등과 같은 외모변형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단지 교복변형변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로 광주지역의 여고생만을 포함하고 있어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만원이면 교복개조 똑딱(2007.7.8). 동아일보, p. C3.
- 김선희(2003). 신체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복식**, 53(1), 87-98.
- 김순구(1986). 自我尊重感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影響.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윤희·Marilyn Delong, Karen Labat(2001). 미국 고교생의 교복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6), 1167-1178.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류숙희·김보연(2002).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스타일 이미지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2), 227-238.
- 박광희(2007).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6), 637-644.
- 박찬혜(1981). **한국여학생 교복에 대한 연구: 여고생 교복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성실·김진희·김누리·서영선·서명임·김지영·김명현·최정화·이관·정해관(2003). '졸' 교복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동국의학**, 10(1), 65-78.
- 이명희(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소형(2007). **여고생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신발구매행동 및 착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경·한영숙·이혜자(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3), 133-148.
- 이은희(2006).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4), 85-102.
- 이인자(1985). 成人女性의 衣服디자인 選好度와 自我概念과의 關係性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9(1), 9-16.
- 이인자(1992). 교복착용 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85-96.
- 이정현·이윤정(2008).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에 대한 시각 및 태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2), 47-60.

- 이혜경(1999). 교복 변형실태와 교복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1993). 남자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태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김세희(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행동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1), 135-150.
- 정혜원·정인순(2005).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 변형. **의류산업학회지**, 7(5), 179-186.
- 정혜정·김하연·이유리(2008).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외모 관 심에 따른 교복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5), 777-787.
- 차경순(1995). 라이프스타일의 差異에 따른 外國商標 選好傾 向에 관한 探索的 研究.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나영주(2003). 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과 선호감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 1026-1035.
- 황진숙·안명화·용유진·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 황진숙·양화영(2006).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소핑성향과 의류제품의 인터넷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30(1), 71-82.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교복변형행동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여고생들의 올바른 교복착용을 위한 의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인문계, 전문계 고등학교 6개교 1, 2학년 학생 602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Kr)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K-평균 군집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교복변형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여고생들은 교복변형을 찬성하고 있어 먼저 일반적 의복행동으로 이해되었으며 다음으로 라이프스타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디지털의존스타일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다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해 정해진 규율에 맞춰 엄격히 단속하기보다 일정한 범위를 두어 개성을 표현하게하거나 속옷을 갖추어 착용하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교복의 기성복화에 따른 유행의 반영은 받아들여더라도 신체가 드러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7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8월 28일